



RICON 건설경기실사지수 (SC-BSI)

이은형 (연구위원, eunhyung@ricon.re.kr, 02-3284-2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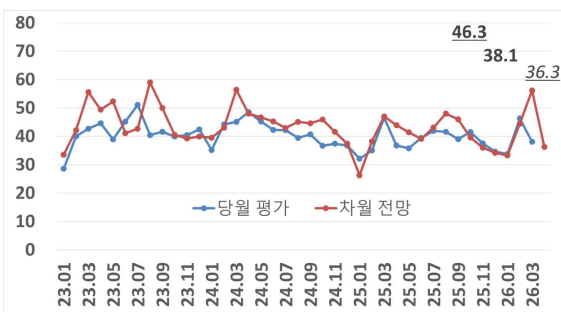
I. 2026년 3월 건설경기평가 및 2026년 4월 전망

■ 3월의 경기평가는 악화, 차월도 개선 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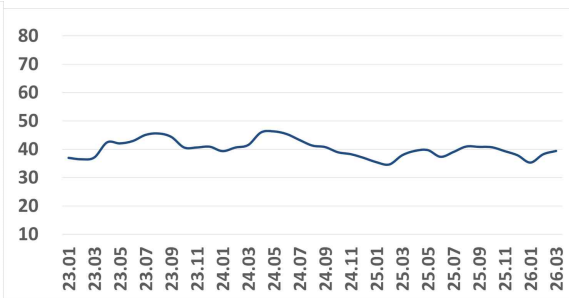
- 3월의 건설경기실사지수는 38.1로 전월(46.3) 대비 하락함(-8.2p). 이는 전년 동월(46.5)보다 악화된 것이며 (-8.4p). 차월(36.3)에도 업황의 개선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1.8p). 이번 조사는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가 사실상 모든 분야에 걸쳐 반영된 결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유가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의 상승과(생산차질 등에 따른) 자재수급 우려가 중점적으로 지적됨.
- 수도권은 32.0(50.0→32.0)으로 전월 대비 크게 하락했으며(-18.0p), 지방도 40.7(44.7→40.7)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됨(-4.0p).

〈표-1〉 2026년 3월 건설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2026년 4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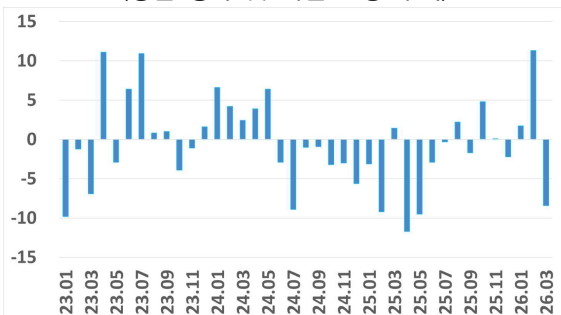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2026년 3월 평가	38.1	46.5	32.0	40.7	26.7	40.6
2026년 4월 전망	36.3	43.9	32.0	38.1	23.3	4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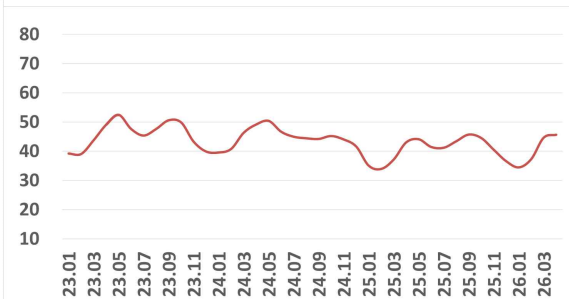
〈당월 평가 및 차월 전망 추이〉



〈당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당월 평가)〉



〈차월 전망의 이동평균선(3개월)〉

II.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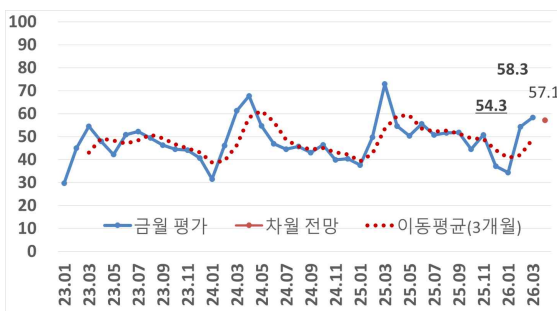
1 공사수주지수 (원도급, 하도급)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은 소폭 상승, 하도급은 전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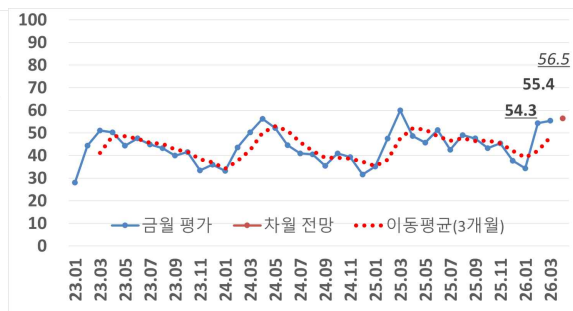
- 공사수주 경기실사지수는 원도급수주가 58.3(54.3→58.3)으로 소폭 상승했으나(+4.0p) 전년 동월(72.9)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14.6p). 하도급수주는 55.4(54.3→55.4)로 전월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1.1p). 현재로서는 공사수주가 일정수준 이루어지더라도 유가와 환율 등 공사비의 상승요인이 수익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우려의 여지가 큰 상황임.
-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83.3→64.0)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19.3p), 지방(42.1→55.9)은 전월에 이어 상승세가 지속됨(+13.8p).
- 하도급 공사수주지수도 수도권(95.8→68.0)에서 크게 하락했으며(-27.8p). 지방(36.8→50.0)은 전월에 이어 상승함(+13.2p).

〈표-2〉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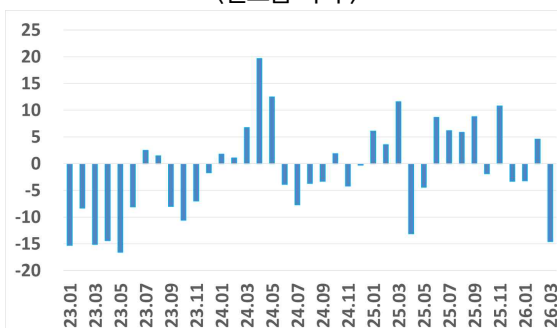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원도급 수주	2026년 3월 평가	58.3	72.9	64.0	55.9	70.0	54.7
	2026년 4월 전망	57.1	66.5	68.0	52.5	73.3	56.3
하도급 수주	2026년 3월 평가	55.4	60.0	68.0	50.0	80.0	45.3
	2026년 4월 전망	56.5	56.8	68.0	51.7	73.3	5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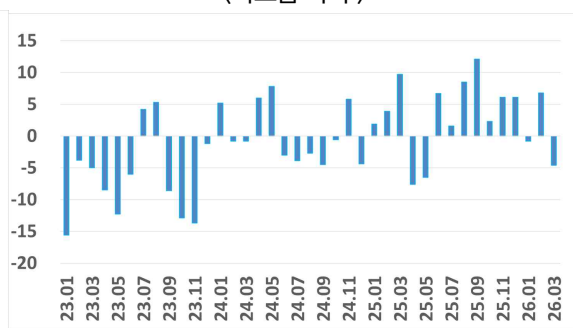
〈원도급 수주〉



〈하도급 수주〉



〈원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하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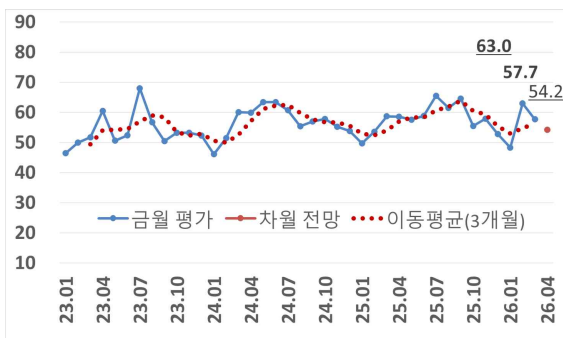
2 자금관련지수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 공사대금수금지수와 자금조달지수 모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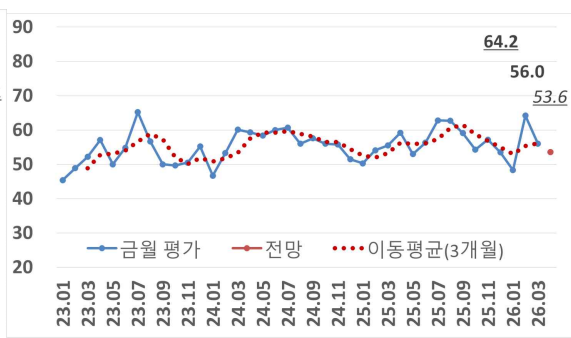
- 공사대금수금 경기실사지수는 57.7(63.0→57.7)로 전월보다 하락했으며(-5.3p), 차월(54.2)에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3.5p). 만약 중동사태 등의 요인으로 건설업황이 더욱 악화된다면 그간 꾸준히 지적되던 민간 공사에서의 미수금 문제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수도권(83.3→52.0)은 크게 하락(-31.3p), 지방(54.4→60.2)은 소폭 상승함(+5.8p).
-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는 56.0(64.2→56.0)으로 전월보다 하락했으며(-8.2p), 이는 전년 동월(55.5)과 유사한 수준임(+0.5p). 다만 차월(53.6)에도 지속적인 하락이 전망되면서(-2.4p). 건설업황의 부진이 자금 조달 부분에서도 점차 가시화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수도권(91.7→54.0)은 크게 하락(-37.7p), 지방(52.6→56.8)은 소폭 상승함(+4.2p).

〈표-3〉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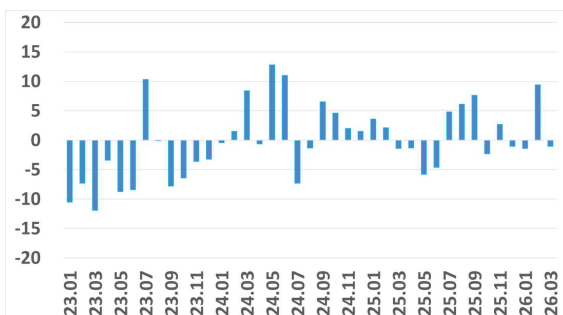
구분	구분	총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공사대금수금	2026년 3월 평가	57.7	58.7	52.0	60.2	56.7	67.2
	2026년 4월 전망	54.2	63.9	52.0	55.1	50.0	56.3
자금조달	2026년 3월 평가	56.0	55.5	54.0	56.8	53.3	64.1
	2026년 4월 전망	53.6	60.0	52.0	54.2	53.3	5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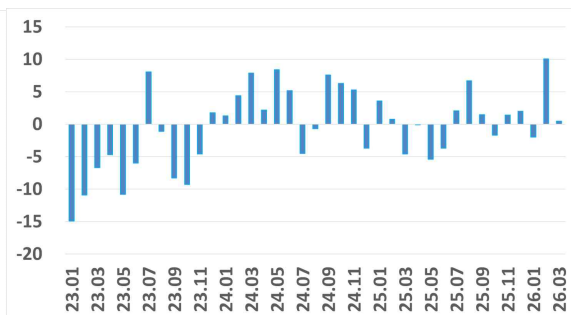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공사대금수금 증감(전년 동월비)〉



〈자금조달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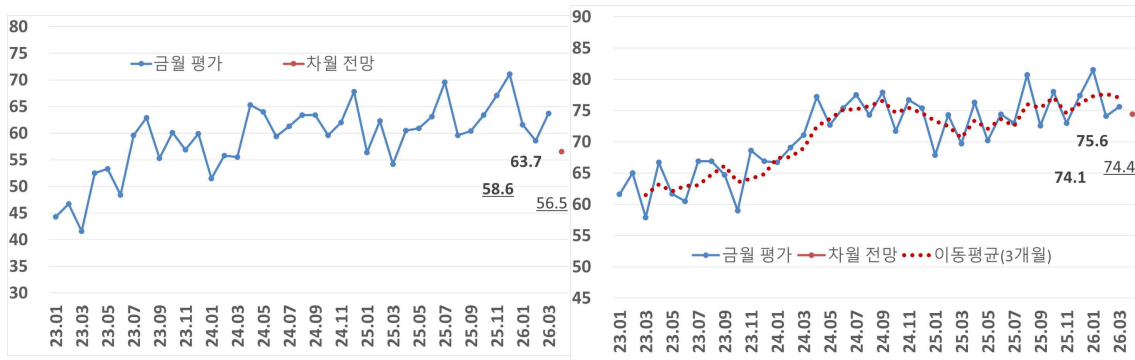
3 건설기능인력 관련 지수 (인건비, 인력수급)

■ 인건비체감은 소폭 상승, 기능인력수급은 전월 수준

- 인건비체감¹⁾ 경기실사지수는 63.7(58.6→63.7)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함(+5.1p). 이는 전년 동월(54.2)보다 높은 수준이지만(+9.5p), 최근 들어 다시금 부각된 건설공사비의 상승은 결국 인건비의 증가를 포함하게 된다는 점에서, 동 조사항목은 향후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수도권(54.2→58.0)은 전월 대비 소폭 상승(+3.8p), 지방(60.5→66.1)도 상승함(+5.6p).
- 기능인력수급 경기실사지수는 75.6(74.1→75.6)으로 전월 수준이었으며(+1.5p), 전년 동월(69.7)보다 높았음(+5.9p). 기술인력의 수급난과 (채용압박 등) 노조 관련 문제는 꾸준함.
 - 수도권(72.9→58.0)은 하락(-14.9p), 지방(74.6→83.1)은 상승함(+8.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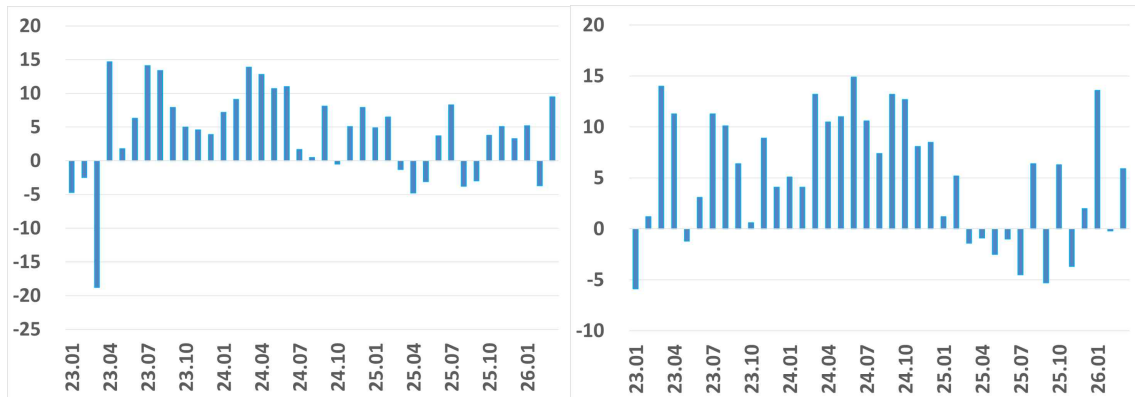
〈표-4〉 인건비 및 기능인력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인건비 체감	2026년 3월 평가	63.7	54.2	58.0	66.1	36.7	85.9
	2026년 4월 전망	56.5	53.5	48.0	60.2	30.0	73.4
인력수급	2026년 3월 평가	75.6	69.7	58.0	83.1	43.3	98.4
	2026년 4월 전망	74.4	67.1	62.0	79.7	46.7	90.6



〈인건비 체감〉

〈인력수급〉



〈인건비 체감 증감(전년 동월비)〉

〈인력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1) 기능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인건비 수준의 체감도(개선 또는 악화)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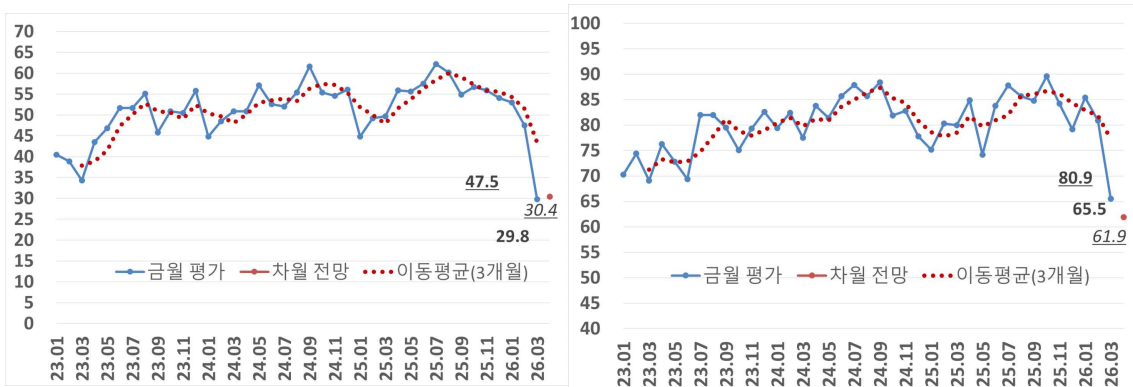
4 건설자재 관련 지수 (자재비, 자재수급²⁾)

■ 자재비지수와 자재수급지수는 크게 하락

- 자재비³⁾ 경기실사지수는 29.8(47.5→29.8)로 크게 하락함(-17.7p). 차월(30.4)에도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0.6p), 동 사안은 장기사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수도권(50.0→26.0)은 크게 하락(-24.0p), 지방(46.5→31.4)도 하락함(-15.1p).
- 자재수급 경기실사지수는 65.5(80.9→65.5)로 악화 되었으며(-15.4p), 차월(61.9)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 됨(-3.6p). 최근의 중동사태가 직접적인 자재수급에 대한 불안 요인임.
 - 수도권(77.1→56.0)은 크게 하락(-21.1p), 지방(82.5→69.5)도 하락함(-13.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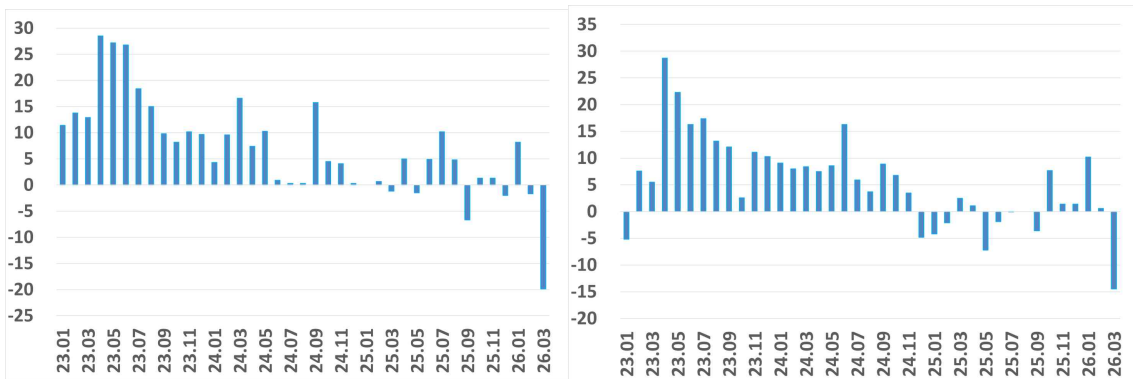
〈표-5〉 자재비 및 자재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자재비 체감	2026년 3월 평가	29.8	49.7	26.0	31.4	10	42.2
	2026년 4월 전망	30.4	52.9	20.0	34.7	10.0	43.8
자재수급	2026년 3월 평가	65.5	80.0	56.0	69.5	30	82.8
	2026년 4월 전망	61.9	74.8	56.0	64.4	33.3	73.4



〈자재비 체감〉

〈자재수급〉



〈자재비 체감 증감(전년 동월비)〉

〈자재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2) 통상적으로 자재수급지수는 타 항목의 지수보다 높음(코로나 이전 시기의 지수는 대략 100정도 수준이었음).
 3) 기업들이 구매하는 자재비의 체감수준(개선 또는 악화)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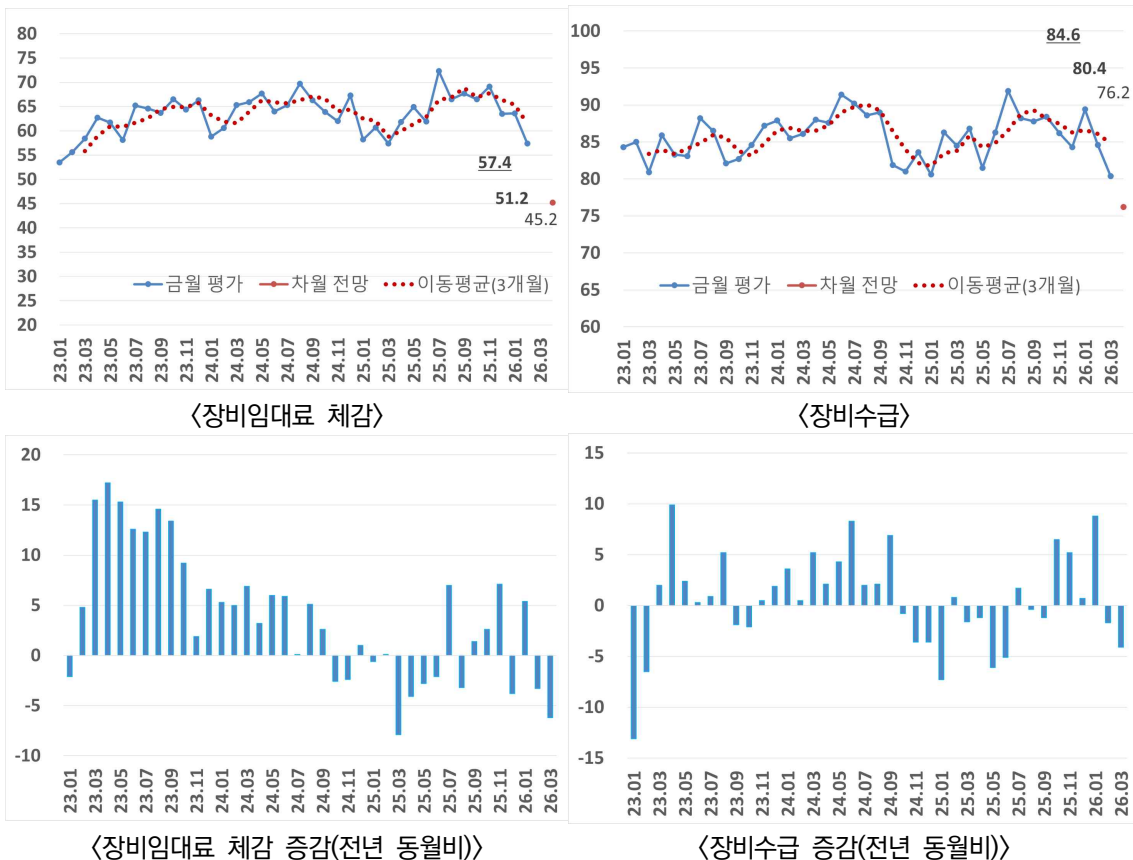
5 건설장비 수급지수 (장비임대료, 장비수급)

장비임대료지수와 장비수급지수는 모두 하락

- 장비임대료 경기실사지수는 51.2(57.4→51.2)로 전월보다 하락했으며(-6.2p), 차월(45.2)에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6.0p). 이는 최근의 유가 상승 등이 건설장비의 운영비용에 곧바로 반영되면서 장비임대료의 변동으로 현실화된 결과임.
 - 수도권(56.3→42.0)은 전월에 이어 하락(-14.3p), 지방(57.9→55.1)도 하락함(-2.8p).
- 건설장비수급 경기실사지수는 80.4(84.6→80.4)로 전월에 이어 하락했으며(-4.2p), 차월(76.2)에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4.2p).
 - 수도권(81.3→76.0)은 전월보다 하락(-5.3p), 지방(86.0→82.2)도 하락함(-3.8p).

〈표-5〉 건설장비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장비임대료 체감	2026년 3월 평가	51.2	57.4	42.0	55.1	26.7	64.1
	2026년 4월 전망	45.2	60.6	44.0	45.8	30.0	60.9
장비수급	2026년 3월 평가	80.4	84.6	76.0	82.2	60.0	90.6
	2026년 4월 전망	76.2	76.1	74.0	77.1	60.0	8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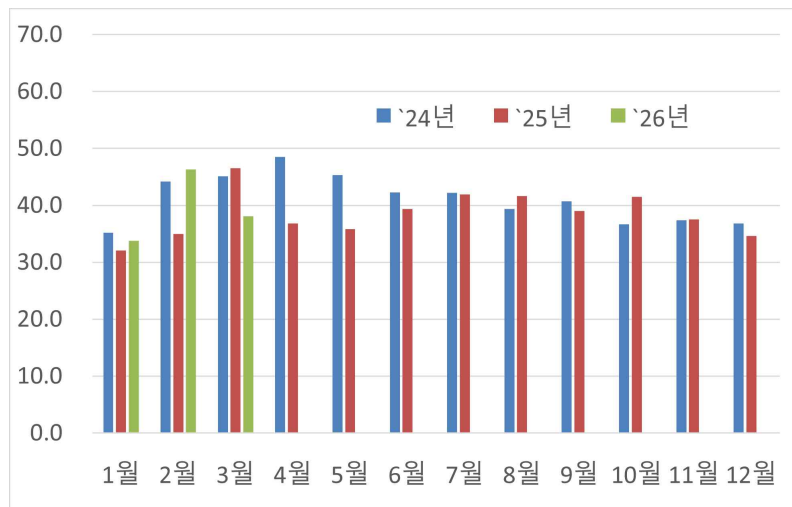


참고: 2026년 3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요약표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전문건설업 경기	금월 평가	38.1	46.5	32.0	40.7	26.7	40.6	
	차월 전망	36.3	43.9	32.0	38.1	23.3	42.2	
공사물량	원도급 수주	금월 평가	58.3	72.9	64.0	55.9	70.0	54.7
		차월 전망	57.1	66.5	68.0	52.5	73.3	56.3
	하도급 수주	금월 평가	55.4	60.0	68.0	50.0	80.0	45.3
		차월 전망	56.5	56.8	68.0	51.7	73.3	54.7
자금사정	공사대금 수금	금월 평가	57.7	58.7	52.0	60.2	56.7	67.2
		차월 전망	54.2	63.9	52.0	55.1	50.0	56.3
	자금조달	금월 평가	56.0	55.5	54.0	56.8	53.3	64.1
		차월 전망	53.6	60.0	52.0	54.2	53.3	54.7
건설 기능인력	인건비 체감	금월 평가	63.7	54.2	58.0	66.1	36.7	85.9
		차월 전망	56.5	53.5	48.0	60.2	30.0	73.4
	인력수급	금월 평가	75.6	69.7	58.0	83.1	43.3	98.4
		차월 전망	74.4	67.1	62.0	79.7	46.7	90.6
건설자재	자재비 체감	금월 평가	29.8	49.7	26	31.4	10	42.2
		차월 전망	30.4	52.9	20.0	34.7	10.0	43.8
	자재수급	금월 평가	65.5	80.0	56	69.5	30	82.8
		차월 전망	61.9	74.8	56.0	64.4	33.3	73.4
건설장비	장비임대료 체감	금월 평가	51.2	57.4	42.0	55.1	26.7	64.1
		차월 전망	45.2	60.6	44.0	45.8	30.0	60.9
	장비수급	금월 평가	80.4	84.5	76.0	82.2	60.0	90.6
		차월 전망	76.2	76.1	74.0	77.1	60.0	85.9

주1: '전체'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을 합산해서 산출.

주2: '광역시'는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최근 3년간의 SC-BSI 비교〉